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한 질적 메타요약

이 윤 희 Xu Nuo 홍 소 은 이 은 별 양 은 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석박통합과정 교수

본 연구는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한 질적 연구들을 대상으로 질적 메타요약을 실시하였다. 기존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이들의 경험을 심도 있게 탐색하였으나, 주제나 분석 방법이 이질적이라는 제한점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질적 연구의 결과에 대한 질적 메타요약을 실시하여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있어 보다 공통적이고 보편적으로 제시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 DB 검색을 통해 총 15편의 연구물들을 분석하여 총 603개의 진술문과 39개의 축약 진술문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은 크게 언어적 스트레스, 교육적 스트레스, 사회문화적 스트레스, 차별, 실생활 스트레스로 분류되었으며 여러 연구에 걸쳐 가장 높은 빈도로 언급된 어려움은 차별, 언어 차, 심리적 거리감으로 인한 대인관계 영역에서의 적응 문제였다. 논의에서는 연구 결과에 반영된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들을 미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함의 및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적인 연구 수행을 제안하고 한국 대학 커뮤니티의 변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중국인 유학생, 대학생활적응, 질적 메타요약, 사회문화적 요인, 다문화 태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양은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학교 운초우선
교육관 618호, Tel: (02)3290-2865, E-mail: yange@korea.ac.kr

Copyright ©2022, Korean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 정부는 국가 및 대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4년에 ‘Study Korea Project’를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후로 유학생에게 특화된 교육과정 개설, 귀국과 정착이 연계된 전주기적 유학지원, 우수 유학생 유치 지원 규모 확대 등의 전략을 통해 2020년을 기준으로 약 15만 명의 유학생이 국내에 유입되었다(교육부, 2014; 이현주, 이미정, 2019).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20년까지 유학생 2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했던 ‘Study Korea Project’의 추진 연한을 3년 더 연장하였고(이연희, 2015), 코로나19 발생 이후로도 유학생의 안정적인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하기도 하였다(교육부, 2021).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오히려 학위과정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약 7,000명이 증가한 12만 명으로 나타났다(교육통계서비스, 2021).

하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유학생 수와 다르게 정부의 유학생 유치 중심 정책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제로 구축되고 있는 지원체계 및 후속 관리 서비스 사이에는 괴리가 있어, 유학생들은 대학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를 실시하여 월 11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이전에 대학에서 연계한 민간 보험가입 시 지불하던 금액의 6배에 도달하는 금액으로(김명광, 2021; 한국경제, 2019) 유학생에게 중요한 요소인 지불 능력과 실제 필요 여부를 반영하지 못하여 이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더해,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학 내에서 진로 탐색 및 취업 관련 정보를 거의 받지 못하며 졸업 후 취업 기회 제공 등의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것에 불만을 표하기도 하였다(김경남, 김남희, 2021). 이외에도 유학생들은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 학습 기술의 부족,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학업적 문제를 경험한다(Hu & Zhang, 2013). 대인관계 측면으로는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한국인 또래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최윤희, 이정은, 2016). 외로움, 향수, 우울(김성혁 외, 2012) 등의 개인 심리적인 어려움과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차별로 인한 사회문화적인 어려움도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저해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Hu & Zhang, 2013).

현재 국내에는 외국인 유학생들 가운데 특히 중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 전체 유학생 중 중국인 유학생의 비율은 44.2%인 67,348명으로, 유학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통계서비스, 2021). 대학별로 중국인 유학생의 수가 1,000명 이상인 곳은 모두 11개 교이며, K 대학교의 경우 1,556명으로 총 유학생의 50.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수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교육통계서비스, 2021). 타 국가 출신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인 유학생 또한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서 제반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는 중도 탈락, 불법 취업·체류 등의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왕방, 이창식, 2013). 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은 더욱 가속화되었는데,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어려움(장이츠, 김민아, 2021)과 대인관계의 단절(Ma, 2021; 양자연, 2021)뿐만 아니라 코로나 발생국이라는 낙인

에서 오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혐오 및 차별(Fu 외, 2021)이라는 특수 맥락 속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은 우울 및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와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까지 직면하기도 하였다(장이즈, 김민아,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거주하는 유학생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들을 위한 적절한 개입 방법을 탐색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타국에서의 삶은 여러 도전적 상황을 불러오며, 유학생이 경험하는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의 많은 부분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소(acculturation stressor)에서 기인한다(Berry, 2006).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연결 지어 살펴볼 때 보다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응이란 둘 혹은 그 이상의 문화적 집단과 그 구성원들이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문화적, 심리적 변화를 뜻한다(Berry, 2005). 이러한 삶의 변화는 유학생들에게 잠재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소들에는 앞서 언급한 중국인 유학생의 언어장벽, 외로움, 차별 등이 포함된다(Berry, 2006; Ward et al., 2001).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소에 대한 대처가 부족할 경우, 스트레스의 증가와 함께 심리·정서 및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Mori, 2000). 물론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소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성장배경과 심리적 요소와 같은 개인차도 존재할 수 있으나, 유학생들의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주류 국가의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은 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Yoon & Portman, 2004). 실제로, 이주민과 주류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문화적응 과정(Berry, 2005)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주민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 요인으로 개인 요인보다는 주류사회의 영향(예: 문화적 태도, 사회적지지)을 보다 중요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Arends-Toth & van deVijver, 2006; Bourhis et al., 1997; Navas et al., 2005; Piontkowski et al., 2002; Safder et al., 2003; Ward et al., 2001).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과정에 관련되는 대표적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주류 사회의 문화적 가치가 있다. 서구 사회에서 수행된 다수의 유학생 대상 연구들은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는 아시아계 유학생이 개인주의적인 서구 사회에서 문화 차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미국의 자기 중심적이고 개방적인 경향과 비판·직면하는 문화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Yan & Berliner, 2011; Yeh & Inose, 2003). 교육 방식의 경우, 지시적이고 엄격한 교육 체계에서 공부하는 데 익숙해져 있던 중국 유학생들은 미국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분위기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Yan & Berliner, 2011). 반면, 동일한 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국가 간에도 문화 차는 존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한국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이면서 유교사상이 강한 반면 중국은 사회주의적 사상이 강하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체계에서 생활하던 중국인 유학생들은 보다 자유로운 자본주의 사회이면서 위계질서와 예의 등의 전통성을 중시하는 한국 특유의 사회적 가치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이로 인해 많은 대인관계 갈등을 경험하였다(하정희, 2008).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고려할 때, 한국 사회 속 중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서구 사회의

중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이질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으며, 한국 고유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문화적응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특히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형성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질적 연구에 주목하였다. 질적 연구는 연구대상의 실제적인 경험과 요구를 그들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파악하여 해석할 수 있고, 다양한 변인 간의 복잡한 인과적 과정을 규명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및 정책 개발을 가능하게 하므로(변기용, 2020),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을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에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질적 연구의 수는 2010년 이전에는 전체 7편에 불과했으나 국내에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10년 후에는 6배가 증가하였다(이선미, 김영순, 2021). 지금까지 축적된 질적 연구를 정리하고자 한 동향 연구에 따르면, 연구주제로는 적응, 문화, 학업, 한국어가 많았으며, 연구대상의 국적으로는 대부분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권 유학생이었고, 방법으로는 사례연구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이선미, 김영순, 2021). 이외에도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적, 질적 연구를 함께 분석한 동향연구가 다수 존재하였다(Jin 외, 2021; 신동훈, 김세현, 2020; 문정현, 윤지원, 2021; 이해영, 박수정, 2018). 중국인 유학생을 주제로 한 개별 질적 연구물들을 살펴보면, 하정희(2008)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학업, 경제, 인간관계, 정서, 미래와

취업에 대한 부담감, 학교의 제도의 6개 범주로 구분하였고, 대학교와 상담기관의 역할 및 제도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신선미와 유문무(2014)는 전공 수업의 어려움, 친구 사귀기의 한계, 교수와의 관계, 사회문화적 차이, 외로움과 우울, 아르바이트 경험의 6개 주제로 범주화하였고, 그중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경험(예: 차별, 편견, 직장문화, 언어이해, 진로 탐색 등)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이처럼 질적 연구는 국내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비록 기존의 질적 연구들이 유학생들의 경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강점이 있으나, 개별 연구의 세부적인 관심 주제나 연구 방법이 상이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는 곧 소수의 개별 사례들의 주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되는 결과들로는 해당 분야에서 공통적이고 보편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핵심 주제를 파악하거나 이를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뜻한다(김민석, 2018). 동향 연구의 경우, 현재까지 이루어진 유학생의 적응 어려움과 관련한 개별 연구들의 현황(예: 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과 성과 및 한계, 후속 연구 방향을 구조적으로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연구의 현황과 흐름을 파악하는 데 그치며, 연구물의 내용을 종합하여 결과를 통합적으로 제시하거나 함의점을 도출하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질적 메타요약(Qualitative Meta-Summary) 방법을 사용하여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과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살

펴보고자 한다. 질적 메타요약은 특정 주제에 대한 여러 질적 연구들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지식과 이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종합(Qualitative Research Synthesis)의 한 방법이다(Drisko, 2019). 질적 메타요약은 여러 질적 연구들의 결과를 축약된 진술문으로 종합하고 각 진술문의 출현 빈도를 보여줌으로써 해당 연구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를 양적으로 보여준다(Sandelowski et al., 2007). 즉, 높은 빈도로 제시되는 결과는 여러 연구들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결과로, 해당 분야에서 특정한 패턴으로 나타나므로 중요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Sandelowski, 2001). 이를 통해 선행 유학생 동향 연구에서 언급한 다수의 개별 질적 연구들의 한계, 즉 개별 연구에 활용된 자료의 규모가 작아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신동훈, 김세현, 2020). 연구자들은 메타요약의 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고 앞으로 보다 세밀하게 연구되어야 할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Sandelowski, 2012). 또한,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상담 및 교육 장면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적용하거나 지양해야 할 개입적 요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달리 말해, 질적 메타요약을 통해 개별 질적 연구들의 결과를 보다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질적 메타요약 방법을 사용한 선행 연구의 예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윤성근 등(2020)은 국내의 선행 연구들이 주로 자살 유가족이 경험하는 주관적인 애도 과정들을 서술하고 있으며, 기존의 이론과 모형에 근거하여 애도의 전반적인 경향과 흐름을 개관한 연구는 부재

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질적 메타요약을 실시해 국내 유가족들의 애도 경험의 공통적인 특성을 체계적으로 종합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이론, 모형, 심리적 개입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김민석(2018)은 개별 질적 연구들에서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대한 개념을 상이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험을 독특하고 주관적인 과정으로만 이해할 경우 다수의 회복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책과 실천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한 분야에서 유사하고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들 간의 연결점을 설명하고자 질적 메타요약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외에서는 McGuire(2019)가 라틴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민 정서 속 삶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러한 현상을 만연하게 한 공통적인 요인을 알아내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인 연구물은 8편으로 그 수는 적었으나 라틴계 이주민이라는 이질적이고 독특한 집단의 경험은 해당 문화권 속 모집단의 경험을 반영하며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리하면, 질적 메타요약은 관심 주제의 질적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현상의 중심이 되는 공통 주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 국내에는 아직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질적 연구물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라는 이질적인 집단의 독특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검토해보기 위해 질적 메타요약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적응의 어려움을 탐색하고, 이러한 어려움에 반영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경험에 대한 통합적인 틀을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가지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내 중국인 유학생이 대학생 활적응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이러한 어려움들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가?

방 법

질적 메타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핵심적인 적응 어려움과 관련 맥락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정리하고자 질적 연구 종합의 한 방법인 질적 메타요약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질적 메타요약(Qualitative Meta-Summary)은 관심 연구 주제의 질적 연구 결과들을 정량적으로 종합하여 중심이 되는 공통 주제를 도출하는 연구방법이다(Sandelowski & Barroso, 2003; Sandelowski et al., 2007). 이는 여러 질적 연구물의 진술문에서 공통으로 묶이는 주제끼리 군집화하여 축약 진술문을 추출하고, 해당 축약 진술문의 빈도 크기를 제시함으로써 이질적인 맥락들 가운데 나타나는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는 강점이 있다(Sandelowski et al., 2007). 추출한 축약 진술문의 빈도효과 크기를 통해 공통 주제를 발견하는 작업은 기존 문헌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추가적으로 탐색이 필요한 연구 질문 혹은 잠재적 가설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Sandelowski & Barroso, 2003). 본 연구는 Sandelowski 등(2007)이 제안한 질적 메타요약 분석기법 및 절차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질적 메타요약에서 사용되는 기법에는 (a) 자료수집, (b) 분석대상 선정, (c) 결과 추출 및 군집화, (d) 축약 진술문 정리, 그리고 (e) 효과크기 산출이 포함된다.

분석 절차

연구팀 구성

본 연구는 3명의 주 연구자(상담전공 박사과정생 1인, 석사과정 수료생 2인)와 2명의 감수자(임상 및 상담심리 전공 박사수료생 1인, 교수 1인), 총 5명으로 연구팀이 구성되었다. 주 연구자는 모두 다양성 주제의 연구 경험이 있으며, 박사과정생 1인과 석사과정 수료생 중 1인은 대학에서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강의를 이수하였다. 다른 석사과정 수료생은 중국인 유학생으로서,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 및 상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주 연구진들은 질적 메타요약 연구 과정을 숙지하기 위해 Sandelowski 등(2007)의 논문과 질적 메타요약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을 읽으며 여러 차례 미팅을 가졌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감수자에게 자문을 구하여 분석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였다. 감수를 맡은 교수 1인은 대학에서 질적 연구방법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질적 연구 및 질적 메타연구를 수행한 경력이 있고, 박사수료생 1인은 대학에서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강의를 이수하였으며 질적 메타요약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감수자들은 본 연구의 자료 분석 전 과정을 검토하였다. 연구팀은 국내 중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과 이와 관련된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

성을 이해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을 중심으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및 분석대상 선정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연구 질문과 관련한 분석대상 연구물을 수집하고자 RISS, KISS, DBpia와 같은 국내 학술 DB와 Google Scholar에서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 키워드는 ‘유학생 대학생활’, ‘유학생 적응’, ‘유학생 어려움’, ‘유학생 학업’, 그리고 ‘유학생 차별’ 등을 사용하였다. 출판 연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고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학술논문이 검색 대상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자료수집 대상은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 과정으로 수학 중인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주된 목적인 질적 연구였다. 적응기제 또는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는 자료수집 대상에서 배제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질문이 국내 중국인 유학생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적응적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료수집은 주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총 49편의 연구물이 일차적으로 수집되었다. 그리고 1차 수집된 연구물들의 참고문헌을 추적하여 검색에서 누락된 3편의 연구물을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분석에 포함할 연구물의 기준을 설정하고 수집된 논문들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여 최종 분석대상 연구물을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제외기준은 1) 직접적인 연구대상이 중국인 유학생이 아닌 경우, 2) 연구대상이 중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 출신의 유학생이나 중국인 유학생의 결과가 명확히 구분되어 진술되지 않은 경우, 3) 연구대상에 중국인 대학원생 혹은 어학원 유학생만 포함

된 경우, 4) 주된 연구 목적이 특정 전공 혹은 지역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인 경우, 5) 연구목적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아닌 경우이다. 이 과정에서 37편이 제외기준에 해당하여 분석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최종적으로 15편이 메타요약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분석대상 선정과정은 주 연구자가 두 명씩 짝을 지어 수집된 논문의 초록과 전문을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의견 차이는 나머지 주 연구자(검토자)의 견해를 종합하여 해소하였다. 질적 메타요약 분석을 위한 연구물 수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질적 메타분석을 진행한 선행연구들은 평균 12편을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Levitt, 2018; Timulak, 2009). 질적 연구가 활발한 간호학 분야에서는 12편 이상, 100편 미만으로 권장하고 있어(Paterson et al., 2001; Timulak, 2009), 본 연구의 최종 15편은 분석대상의 편수로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축약 진술문 추출

질적 메타요약을 위해 분석대상 연구물로부터 추출하는 연구결과는 개별 질적 연구의 연구자가 연구 대상들로부터 얻은 자료에 대해 해석을 담아 작성한 진술문이다. 결과 추출 및 군집화 단계에서, 두 명의 주 연구자가 짝을 이루어 담당 연구물의 결과 파트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관한 진술문을 독립적으로 추출하였다. 추출 시, 여러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문장은 각각의 의미를 반영하고자 여러 진술문으로 나누었고, 반대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들은 하나의 진술문으로 통합하였다. 두 명의 주 연구자로부터 추출된 결과는 상호대조하며 각 진

술문을 메타요약에 포함할 것인지 합의하였고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 나머지 주 연구자인 검토자의 의견을 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종 진술문 목록이 생성되었다. 다음으로, 주 연구자 세 명은 최종 진술문 목록에서 비슷한 주제의 진술문끼리 군집화하는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군집화하는 과정에서 유학생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분류 기준을 제시한 Smith와 Khawaja(2011)의 이론적 틀이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활용하여 각 진술문을 적절한 주제영역에 분류하였다. 군집화된 결과는 세 명의 주 연구자끼리 상호대조하며 합의에 이를 때까지 논의하였고, 이후 감수자 2명에게 확인받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군집화된 결과물은 원문이 내포하는 의미를 최대한 손상하지 않고 전달될 수 있고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축약되었다. 즉, 질적 메타요약의 최종 산물인 축약 진술문은 원문의 맥락을 유지하면서도 각 주제에 걸쳐 나타난 유사한 결과 진술문들을 요약함으로써 더 적은 문장과 단어로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효과크기 산출

마지막으로, 추출된 축약 진술문의 빈도효과 크기와 각 연구물의 강도효과 크기를 산출하였다. 빈도효과 크기는 각 축약 진술문이

전체 연구물들에서 어느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증거 우위 논리에 따라,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결과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띠며 해당 영역의 패턴 혹은 중심주제를 발견하는 데 기초가 되는 반복적 증거로 간주된다(Sandelowski, 2012). 반면, 강도효과 크기는 각 연구물이 전체 분석결과에 기여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써 질적 메타요약의 최종 결과물을 과소 혹은 과대평가하는 것을 방지한다(Sandelowski et al., 2007). 예를 들어, 분석대상 연구물 중 높은 강도효과가 소수 연구물에 치중되어 있다면, 일부 연구물의 결과가 전체를 대변하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김민석, 2018; 윤성근 외, 2020). 빈도효과 및 강도효과 크기 산출방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연구의 질 평가

질적 메타종합 연구에서 선정된 연구물의 질 평가 과정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개별 연구물에 대한 질 평가는 메타종합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중요한 과정이라 볼 수 있다(Walsh & Downe, 2005; 우진영, 2016). 본 연구는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기본적으로 동료평가 과정을 거쳐 출판된 학술논문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지만, 개별 질적 연구물에 대한 이해와 질적 재검토를 위해 질 평가를 실시하였다.

$$\text{각 축약 진술문의 빈도효과 크기(\%)} = \frac{\text{해당 축약 진술문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연구물의 수}}{\text{분석 대상 연구물의 총 수}} \times 100$$

$$\text{각 연구의 강도효과 크기(\%)} = \frac{\text{해당 연구물에서 추출된 축약 진술문의 수}}{\text{추출된 축약 진술문의 총 수}} \times 100$$

그림 1. 빈도효과 및 강도효과 크기 산출 공식

Sandelowski와 Barroso(2007)의 제안에 따라, 질 평가의 결과는 분석대상의 제외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선정된 연구물로 도출된 결과와 해석의 잠재적인 한계점을 살펴보기 위한 사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평가도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질적 메타종합 연구와 국외에서 개별 질적 연구물을 평가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me(CASP)를 사용하였다. CASP(2018)는 10개 문항을 통해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기여도를 평정한다. 한 논문 당 두 명의 주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논문의 질을 평정하였고, 상호합의를 통해 최종 평정 결과를 도출하였다. 점수 매기기 과정에서 나머지 주 연구자는 검토자 역할을 수행하며 평정 결과를 리뷰하고

불일치하는 결과를 해소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분석대상 연구물의 질과 강도효과 크기는 표 1에 제시되었다. 전체 연구물의 강도효과 크기의 범위는 10%~59%였다. 이 중 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10%대 강도효과 크기를 보인 연구물 H, N, O는 중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적응적 어려움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맥락을 중심으로 탐구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질 평가 항목 중 고려해야 할 점은, 과반수 이상의 연구물이 연구자와 참가자 간의 관계 또는 윤리적 문제의 고려에 대해 기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은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이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과정에서의 참여자 권리 보호 등 연구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표 1. 분석대상 연구물의 질 평가와 강도효과 크기

질문	연구물 평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연구의 목적 진술이 얼마나 명확한가?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질적 연구방법이 타당한가?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연구 목적을 다루기에 연구 설계가 적절하였는가?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모집계획이 연구목적에 적절하였는가?	y	y	y	y	n	y	n	y	y	y	y	y	n	y	y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는가?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연구자와 참가자 간의 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n	n	n	n	n	n	n	y	n	n	n	n	n	y	y
윤리적 문제가 고려되었는가?	n	y	n	n	y	n	n	y	n	n	n	y	n	y	y
데이터 분석은 충분히 엄격했는가?	y	y	y	y	y	y	y	y	y	y	y	y	n	n	y
결과물에 대한 명료한 진술이 있는가?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연구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예	8	9	8	8	8	8	7	10	8	8	8	9	6	9	10
강도효과 크기(%)	56	51	59	28	46	13	10	18	23	38	36	26	36	15	10

주. y=예, n=아니요.

역할을 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연구물로 살펴보았을 때, 질 평가에서 7점을 받은 연구물 G는 강도효과 크기가 10%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연구의 질이 낮은 연구물이 분석결과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적다고 평가된다. 질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연구물 M은 36%의 강도효과 크기를 보여 전체 연구 결과에 평균 수준의 기여를 하였는데, 이는 동료평가를 거쳐 출판된 학술논문으로 최소한의 질은 확보했다고 보인다. 해당 논문을 제외한 논문들은 전체 연구에 기여도가 큰 동시에 질 평가 점수가 7점 이상인 바,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결 과

분석대상 연구물의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물의 수는 총 15편이며 각 연구물의 세부적인 특성은 표 2에 정리하였다. 분석대상 연구물의 특성은 질적 메타요약을 적용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코딩 틀을 활용하였으며(윤성근 외, 2020; Sandelowski et al., 2007), 출판 연도, 학문분야, 연구목적, 서술된 연구방법, 그리고 표본 수 및 특성이 포함되었다. 표본의 특성으로는 연구 참여자의 성별, 학위과정, 연령, 학년, 체류기간, 그리고 한국어 능력이 파악되었다. 그러나 각 연구물이 기재한 정보들이 상이한 바, 연구물에서 확인된 특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전

체 15편 중 2편(연구물 B, M)의 경우 다양한 국가 출신의 유학생을 포함하였으나, 중국인 유학생의 결과 진술이 타 국가 출신 유학생의 진술과 구분되어 최종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전체 15편 중 5편의 연구물(연구물 B, D, F, J, K)을 제외하고는 연구대상에 대학원생 또는 어학원생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학원생과 어학원생의 경험이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인 학부생의 경험과 구분되어 진술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진술문 추출이 가능하였으므로 최종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혼합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도 1편 있었는데(연구물 J), 그중 질적 연구방법(현상학적 연구)을 적용한 결과만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연구물의 강도효과 크기는 10%~59%의 범위를 가졌다. 강도효과 크기가 가장 높은 연구물은 C(59%)로 해당 연구물이 전체 연구결과에 기여한 정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0%대의 낮은 강도효과 크기를 보인 연구물은 대체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인 유학생의 적응적 어려움에 관한 주제로 특수 맥락을 반영한 결과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분석한 질적 연구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출판되었으며, 특히 2021년도에 가장 많은 논문이 출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논문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일상생활 어려움이나 재난 상황에서 두드러지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이 외, 대부분의 연구물의 연구목적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는 것, 적응과정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표 2. 분석대상 연구물의 특성

연구물	출판 년도	학문 분야	연구목적	서술된 연구방법	표본 수 및 특성
A	2008	심리학	중국 유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양상 분석	주제 분석 (Patton, 1990)	총 11명 - 성별(남 5명, 여 6명) - 학위과정(학부 8명, 대학원 3명) - 연령(25세 이하 3명, 25세~30세 8명) - 학년(1학년 3명, 3학년 1명, 4학년 4명, 석사과정 3명) - 체류기간(1년 6개월~5년)
B	2009	상담학	중국/일본 유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요구 분석으로 국가 간의 요구 차이 확인	내러티브 분석 (Lieblich et al., 1998)	총 6명 - 학위과정(학부 6명) - 연령(평균 22세) - 학년(1학년 6명) - 체류기간(6개월~2년) - 한국어 능력(5급 이상)
C	2009	아동 가족학	대학생활문화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및 적응 요인 파악	근거이론 방법 (Creswell, 1998)	총 16명 - 성별(남 7명, 여 9명) - 학위과정(학부 13명, 대학원 3명) - 학년(1학년 4명, 2학년 3명, 3학년 6명, 대학원 3명) - 체류기간(4개월~3년 6개월)
D	2012	교육학	중국 유학생들이 교우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 탐색	심층면담	총 20명 - 성별(남 8명, 여 12명) - 학위과정(학부 20명) - 학년(1학년 4명, 2학년 5명, 3학년 8명, 4학년 3명) - 한국어 능력(3급 이상)
E	2014	사회 복지학	중국 유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경험은 어떠하며, 그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해	심층면담	총 8명 - 학위과정(학부 2명, 대학원 6명)

표 2. 분석대상 연구물의 특성

(계속 1)

연구물	출판 년도	학문 분야	연구목적	서술된 연구방법	표본 수 및 특성
F	2016	다문화 교육학	제한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입학동기 및 지각된 차별과 대학생 활 적응양상과 대처방안을 모색	현상학적 분석 (Giorgi, 1970)	총 8명 - 성별(남 4명, 여 4명) - 학위과정(학부 8명) - 연령(20세~26세) - 학년(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3명, 4학년 3명) - 체류기간(2년 이상)
G	2018	교육학	중국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대학교육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통한 서비스의 질 제고	심층면담	총 8명 - 성별(남 1명, 여 7명) - 학위과정(학부 2명, 대학원 6명) - 연령(21세~37세)
H	2021	사회 복지학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제한 중국 유학생들이 겪는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서비스 욕구 파악	주제 분석 (Braun & Clarke, 2006)	총 20명 - 성별(남 6명, 여 14명) - 학위과정(학부 6명, 대학원 14명) - 연령(25세~30세) - 체류기간(1년~5년)
I	2008	사회 복지학	제한 중국 유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의 본질과 의미 그리고 적응에서의 욕구와 문제 탐색	현상학적 분석 (Colaizzi, 1978)	총 9명 - 학위과정(학부 3명, 대학원 4명, 교환 2명) - 연령(21~24세) - 체류기간(1년 이상)
J	2010	사회 복지학	제한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전략, 문화정체감 및 학교생활 적응의 학년별 차이를 횡단 비교분석	현상학적 분석 (Giorgi, 1985)	총 20명 - 성별(남 9명, 여 11명) - 학위과정(학부 20명) - 연령(18세~24세) - 학년(1학년 5명, 2학년 5명, 3학년 5명, 4학년 5명)
K	2010	심리학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제한 중국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한국의 대학생활과 그 경험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적응양상 탐색	근거이론 방법 (Strauss & Corbin, 1990)	총 30명 - 성별(남 15명, 여 15명) - 학위과정(학부 30명) - 연령(21세~26세) - 학년(3학년 21명, 학년 9명) - 체류기간(1년 이상) - 한국어 능력(3급~5급)

표 2. 분석대상 연구물의 특성 (계속 2)

연구물	출판 년도	학문 분야	연구목적	서술된 연구방법	표본 수 및 특성
L	2012	간호학	제한 중국 유학생들의 유학생활에서 적응의 경험적 구성요소는 무엇이며, 이들 경험 요소들은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 탐색	현상학적 분석 (Giorgi, 2004)	총 5명 - 성별(남 3명, 여 2명) - 학위과정(전문학사 2명, 학부 2명, 대학원 1명) - 연령(22세~26세) - 학년(2학년 3명, 3학년 1명, 석사과정 1명) - 체류기간(1년~4년)
M	2014	다문화 교육학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한국생활 경험을 통해 타자의 시각과 관점에서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분석	심층면담	총 6명 - 학위과정(학부 3명, 대학원 2명, 어학원 1명) - 체류기간(1년~5년)
N	2021	교육학	코로나19 사태가 중국인 유학생들의 일상생활에 가져온 변화, 중국인 유학생의 비대면 수업 경험 및 소감,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특징 분석	사례연구	총 7명 - 성별(남 1명, 여 6명) - 학위과정(학부 3명, 대학원 4명) - 학년(2학년 1명, 3학년 2명, 석사과정 4명) - 한국어 능력(5급 이상)
O	2021	사회 복지학	국내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한 사회적 낙인 분석	주제 분석 (Braun & Clarke, 2006)	총 20명 - 성별(남 6명, 여 14명) - 학위과정(학부 6명, 대학원 14명) - 연령(22세~41세) - 학년(1학년 1명, 2학년 2명, 3학년 2명, 4학년 1명, 석사과정 8명, 박사과정 6명) - 체류기간(1년 4개월~6년)

주, 대학원생에 관한 진술문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기 위해 대학 서비스에 요구되는 바를 파악하는 것 등에 해당하였다. 다음으로, 학문분야는 사회복지학 5편, 교육학 3편, 다문화 교육학 2편, 심리학 2편, 상담학 1편, 아동가족학 1편, 그리고 간호학 1편으로 사회복지학 분야가 가장 많았다. 서술된 연구방법은 현상학적 연구 4편, 주제 분석 3편, 근거이론 연구 2편, 사례 연구 1편, 내러티브 분석 1편이었고, 그 외 4편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나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확인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전체 표본 수와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연구물에 포함된 연구 참여자는 총 194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대는 18세에서 41세이고 대부분이 20대 초·중반에 속하였다. 성별은 전체 표본 중 165명(85.1%)만이 확인되었는데, 그중 여자가 100명(60.6%), 남자가 65명(39.4%)이었다. 학위과정은 학사과정이 132명(68.0%), 석·박사과정이 57명(29.4%), 전문학사과정·어학원·교환학생은 5명(2.6%)이었다. 학부생의 학년 분포는 1학년 24명(20.3%), 2학년 20명(16.9%), 3학년 49명(41.5%), 4학년 25명(21.2%), 미확인 14명(10.6%)으로 3학년이 가장 많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국내 체류기간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6년이었고, 한국어 능력은 TOPIK 3급에서 6급 사이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중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대학생활 적응 어려움에 관한 질적 연구 15편에 대한 메타요약을 실시한 결과, 추출된 결과 진술문은 총 603개였다. 유사한 주제의 결과 진술문은 Smith와 Khawaja(2011)가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 어려움을 언어적 스트레스(language

stressors), 교육적 스트레스(educational stressors), 사회문화적 스트레스(sociocultural stressors), 차별(discrimination), 그리고 실생활 스트레스(practical stressor)의 5가지로 구분한 이론적 틀을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분류 및 군집화된 결과 진술문을 바탕으로 총 39개의 축약 진술문이 산출되었으며 빈도효과 크기는 7%~67%의 범위를 가졌다. 전체 축약 진술문에서 가장 높은 빈도효과를 보인 진술문은 “한국인 학생들과 교수가 편견 또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중국과 중국 학생들을 대하는 것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로 차별 영역에서 확인되었다. 해당 축약 진술문의 빈도효과 크기가 크다는 것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체류하며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핵심적인 어려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도효과가 낮은 축약 진술문 또한 유학생의 적응 어려움에 있어서 여전히 의미 있는 소수의 주제로 볼 수 있으나, 유학생들이 보편적이고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을 발견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각 주제별로 높은 빈도효과 크기를 나타낸 진술문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전체 축약 진술문 분류 결과와 빈도효과 크기는 표 3에 제시하였고, 각 영역별 축약 진술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언어 스트레스

언어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에서는 “한국어 능력 부족 또는 언어적 차이(예: 중국어 억양, 조선족 언어)로 인해 소통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의 진술문이 60%의 가장 높은 빈도효과 크기를 보였고,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이해 및 표현능력 부족은 학업성취에 큰 장벽이 된다”가

표 3. Smith & Khawaja(2011)의 유학생 문화적응 모델(Acculturation Model Applied to International Students)에 따른 축약 진술문 분류

분류 기준	축약 진술문 (해당 연구물)	빈도 효과 크기 (%)
언어적 스트레스	한국어 능력 부족 또는 언어적 차이(예: 중국어 억양, 조선족 언어)로 인해 소통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 (A, B, C, E, F, I, J, K, L)	60%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이해 및 표현능력 부족은 학업성취에 큰 장벽이 된다. (A, B, E, F, J, K, L)	47%
교육적 스트레스	유학에 대한 스스로와 주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성취가 낮을 경우 심리적 고통감(예: 학업 의욕 상실, 자기 비하)을 느끼거나 학업을 포기한다. (A, B, E, K, L)	33%
	한국의 수업방식과 커리큘럼 등 중국과 다른 학습문화에 적응해야 한다. (A, B, C, D, K)	33%
	교수의 유학생에 대한 무관심과 배려 없는 수업, 부족한 능력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A, C, G, J, M)	33%
	조별 과제나 발표가 있는 수업에서 조에 기여하는 바가 없어 위축되거나, 한국인 학생에게 무시당한다. (E, G, K, M)	27%
	한국인 학생들에게 학업적 도움을 받고 싶으나 낮은 환경과 거절 경험, 미안함 등으로 도움 요청이 쉽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한국인 학생들이 잘 도와주지 않는다. (A, B, M)	20%
	수업에서 사용되는 한국식 영어 또는 영어 교재로 학업에 이중 부담을 느낀다. (A, C, E)	20%
	한국 학생들과 동일한 성적 평가방식으로 인해 심적 부담을 느낀다. (B, C)	13%
	유학생으로서의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한국 내에서의 취업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진로의 방향을 바꾼다. (A)	7%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 학사 변경 등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느라 어려움을 겪는다.* (H, N)	13%
	코로나19 이후 인턴십과 채용 기회가 대폭 감소했고, 유학생들은 진로 계획을 변경한다.* (H, N)	13%

표 3. Smith & Khawaja(2011)의 유학생 문화적응 모델(Acculturation Model Applied to International Students)에 따른 축약 진술문 분류 (계속 1)

분류 기준	축약 진술문 (해당 연구물)	빈도 효과 크기 (%)
대인 관계	한국인 학생들과 거리감을 느끼고 속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피상적인 관계만 맺는다. (A, B, C, D, E, I, J, K, L)	60%
	대학 내에서 중국인 유학생들만의 강력한 지지체계를 형성하는데, 이는 한국인 학생들과 단절되어 분리되는 결과를 낳는다. (B, C, D, E, F, J, K, L)	53%
	양국의 문화차이(예: 사고방식, 대화 주제, 놀이 및 음식문화)와 정치경제 및 역사적 문제로 인해 오해가 생기거나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이 생긴다. (A, B, C, D, E, J, K)	47%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인관계 장면에서 외로움과 소외감을 경험하며, 지지자원 혹은 심리적 대처 능력 부족은 이를 강화하기도 한다. (A, B, C, E, F, K, L)	47%
	한국인 학생들과 이해타산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이에 불편함을 느낀다. (A, B, D, J)	27%
사회 문화적 스트레스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은 줄어든 각종 참여기회 및 중국인에게 코로나 발발의 책임을 묻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대인 관계망이 위축되었으며, 가족 등 지지체계 없이 홀로 한국에서 지내면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다.* (H, N, O)	20%
	나이와 사회적 지위에 따른 서열, 존댓말 등의 예의를 중시하는 한국의 관습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특히 이러한 문화를 강요받을 때 어려움을 느낀다. (A, C, E, I, J, K, M)	47%
문화 차이	음식, 술, 종교문화에서 차이와 불편함을 느낀다. (C, F, J, K, L, M)	40%
	한국의 남녀불평등 문화를 접하고 문화적 차이를 크게 느낀다. (C, E, I, M)	27%
	한국의 집단주의적, 관계 중심적 특성에 불만을 호소한다. (A, K, M)	20%
	한국의 시간, 외모, 재력 등의 경쟁 문화에 적응하기 어렵다. (J, M)	13%
	외래어 사용, 더치페이 등 서양 유래 생활방식이 보편화되어있는 한국에 문화 차이를 느낀다. (A, E)	13%

표 3. Smith & Khawaja(2011)의 유학생 문화적응 모델(Acculturation Model Applied to International Students)에 따른 축약 진술문 분류 (계속 2)

분류 기준	축약 진술문 (해당 연구물)	빈도 효과 크기 (%)
차별	한국인이 중국(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예: 경제력, 청결도, 조선족에 대한 선입견 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A, B, C, D, E, J, K, L, M, O)	67%
	한국인으로부터 무시와 공공연한 모욕(예: 국가 무시, 인종적 표현 등)을 당한다. (A, B, C, D, E, J, L, M)	53%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인의 배타성과 자민족중심주의를 지적하고 있다. (A, B, D, E, J, K, M)	47%
	한국인의 태도가 유학생의 출신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느낀다. (B, C, D, E, M)	33%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방, 혐오,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다.* (H, N, O)	20%
경제	생활비 마련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다. (A, B, C, I, L)	33%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 혜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A, B, C, I)	27%
	코로나19 이후 항공권, 자가격리를 위한 숙박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늘었다.* (H, N)	13%
생활	좋지 않은 거주환경 및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적은 기숙사 제도로 불만을 느낀다. (A, B, C, G, J, M)	40%
	유학생들은 보험 가입, 핸드폰 개설, 홈페이지 가입 등이 안 되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C, I)	13%
실생활 스트레스	유학생 맞춤 지원(예: 학사, 교육·진로 서비스 정보, 교류 프로그램 제공, 교환 학생과 차별지원, 소수민족 지원 및 행정처리 창구)이 부족하며,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이거나 도움 제공 수준이 미비하다. (A, B, C, D, G, I, J, M)	53%
	실제 입학 후 보게 된 대학 사정이나 교육환경이 홍보 내용과 많이 달라 실망과 불만을 느낀다. (C, D)	13%
교내 지원	유학생들을 위한 사회복지 및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중국인 유학생 간의 자조모임의 필요성을 느낀다.* (E, H)	13%
	유학생들은 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며, 기회 부재, 체불임금, 차별대우, 성희롱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B, C, E)	20%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유학생 관련 출입국 및 방역 정책이 까다로워지고 여러 차례 바뀌어서 불편함을 느낀다.* (H, N, O)	20%

주. *코로나19 맥락에서 보고된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은 타 축약 진술문들과 구분하여 제시됨.

47%로 그 뒤를 이었다. 전자의 축약 진술문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결과 진술문으로는,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유학생 내내 큰 스트레스이다’, ‘유학생의 기대와 의사소통의 문제를 실감하면서 높은 수준의 정서적 불안정과 소외감을 경험하였다’, ‘중국인의 언어 억양으로 오해를 사는 경우이다’, ‘조선족 유학생들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학교와 사회생활 적응에는 큰 어려움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한국어와 조선족 언어는 사용과 이해 상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학교생활과 한국문화 적응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등이 있다. 후자의 축약 진술문의 근거가 되는 결과 진술문에는 ‘외국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공수업 시 전문용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여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등이 포함된다.

교육적 스트레스

학업 장면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교수법, 학습문화, 낮은 학업성취, 조별 과제,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발생한 학업적 어려움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있었다. 가장 높았던 빈도효과 크기는 33%로, “유학에 대한 스스로와 주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성취가 낮을 경우 심리적 고통감(예: 학업의욕 상실, 자기비하)을 느끼거나 학업을 포기한다”, “한국의 수업방식과 커리큘럼 등 중국과 다른 학습문화에 적응해야 한다”, “교수의 유학생에 대한 무관심과 배려 없는 수업, 부족한 능력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교수의 유학생에 대한 무관심과 배려 없는 수업, 부족한 능력으로 어

려움을 겪는다”의 세 가지 축약 진술문이 동일한 크기로 보고되었다. 이는 타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온 유학생들이 낮은 성취가 지속되면서 가지게 되는 학습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한다. 또한, 한국식 교육제도, 선행 학습내용의 차이, 학습법, 시험유형, 면학 분위기 등에 새롭게 적응하면서 겪는 심적 부담감, 학습방식의 차이로 학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 상태를 나타낸다. 이에 더해, 유학생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교수설계 등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난 진술문은 27%를 차지한 “조별 과제나 발표가 있는 학습공동체에 기여하는 바가 없어 위축되거나, 한국인 학생에게 무시당한다”였다. 이는 학부 수업의 경우 팀을 이루어 과제를 수행하거나 조별 발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의 부족한 능력으로 한국인 조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두려워하거나 자신을 반기지 않는 듯한 한국인 학생들의 태도에 위축감을 경험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사회문화적 스트레스

사회문화적 스트레스는 대인관계와 문화 차이의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빈도효과 크기가 가장 컸던 진술문은 “한국인 학생들과 거리감을 느끼고 속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피상적인 관계만 맺는다”로, 60%의 효과크기를 보고하였다. 이는 수업을 통해 한국 학생을 알게 되어도 학기가 끝나면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한국 학생들을 사귀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끼거나, 깊이 있는 관계가 되기 어렵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 내에서 중국인 유학생들만의 강력한 지지체계를

형성하는데, 이는 한국인 학생들과 단절되어 분리되는 결과를 낳는다”의 축약 진술문이 53%의 빈도효과 크기로 나타났다. 해당 축약 진술문을 지지하는 내용으로는 중국 유학생의 학교 친구 대부분은 다른 중국인 유학생들이며, 학교생활에 필요한 도움이나 정보를 중국인 친구나 선배에게서 얻게 되므로 대학 내에서 유학생집단으로 격리될 소지가 큰 것, 한국인들과의 대인관계를 축소하거나 회피하고 중국인 유학생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등이 있다. 다음으로,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의 측면에서는 “나이와 사회적 지위에 따른 서열, 존댓말 등의 예의를 중시하는 한국의 관습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특히 이러한 문화를 강요받을 때 어려움을 느낀다”의 축약 진술문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존댓말 사용의 부담, 연령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예의 문화의 어려움, 선후배 간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요구하는 분위기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차별

차별 주제에서는 “한국인이 중국(인)에 대한 편견 또는 고정관념(예: 경제력, 청결도, 조선족에 대한 선입견 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가 67%, “한국인으로부터 무시와 공공연한 모욕(예: 국가 무시, 인종적 표현 등)을 당한다”가 60%로 높은 빈도효과 크기를 보였다. 전자의 진술문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상당수 한국 대학생들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국가의 경제력으로 판단되고 평가된다는 사실로 힘들어하거나, 조선족 특유의 어투가 바로 구별이 되어 조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인 선입견의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속상함과 혼란을 경험하는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후자의 진술문을 구성한 내용으로는 한국인이 중국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중국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있거나, 돕고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 한편에 무시를 깔고 있거나, 중국의 물품에 대한 불신을 보이는 것 등이 있다.

실생활 스트레스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로, 유학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빼놓을 수 없다. 경제적 요소에서는 “생활비 마련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다”가 33%로 높은 빈도효과 크기를 보였다. 여기에는 생활비 마련의 부담, 비싼 물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중 부담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에 더해, 생활 요소에서는 “좋지 않은 거주 환경 및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적은 기숙사 제도로 불만을 느낀다”가 40%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기숙사 입사 기준, 한국인 재학생 위주의 기숙사 규칙과 식단, 한국인 재학생과 분리된 기숙사 배정 등에 관한 불만족이 진술문 형성의 근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교내 지원 요소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 차원의 맞춤 교내 지원 서비스가 미흡하며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해당 축약 진술문은 “유학생 맞춤 지원이 부족하며,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이거나 도움 제공 수준이 미비하다.”로 실생활 스트레스 주제에서 가장 높은 53%의 빈도효과 크기를 보였다. 여기에는 교내 국제 교류처나 유학생지원센터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외국인 유학생 맞춤 오리

엔테이션, 수강 및 학사지도, 튜터링 프로그램, 취업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학생교류 및 문화 체험 등의 다양한 교육 및 행정서비스가 부족하여 겪는 어려움이 진술문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의 요소들을 종합하고 이들의 경험을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경험을 주제로 진행된 국내 연구들을 대상으로 질적 메타요약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연구물은 총 15편으로 추출된 진술문은 총 603개, 유사한 주제에 따라 구성된 축약 진술문은 39개였다. 축약 진술문들은 Smith와 Khawaja(2011)가 제시한 5가지의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소(acculturative stressors)에 따라 분류 및 제시되었다. 메타요약을 통해 분석하고 분류한 결과에 따르면, ‘차별’ 요소가 빈도효과 크기가 가장 높은 축약 진술문을 포함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언어적 스트레스’와 ‘사회문화적 스트레스’가 높은 빈도를 보인 축약 진술문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 뒤를 ‘실생활 스트레스’와 ‘교육적 스트레스’가 따랐다. 모든 축약 진술문은 5가지 틀 안에 분류되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서양 국가에 거주 중인 중국인 유학생과 국내 거주 중국인 유학생의 상황 간에 차이점이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어려움이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어떤 관련

성을 보이고 있는지 논의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로, ‘차별’ 영역에서 나타난 중국인 유학생들의 가장 보편적인 경험은 한국인 학생과 교수가 중국(인)에 대해 편견 또는 고정관념을 가진 것을 목격하거나 이들로부터 무시와 공공연한 모욕을 당하는 것이었다. 차별은 유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다문화 인구(예: 이민자, 종교적 소수자, 성적 소수자, 장애인 등)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선행 요소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다(Suc, 2010). 특히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많은 부분은 차별을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산물이라고 정당화하는 신인종차별주의적(neo-racism)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Lee & Rice, 2007). 이는 주류 문화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다는 명목 아래 차별을 합리화하고, 각 국가의 경제적 지위 등을 기준으로 주류 국가의 문화가 이주민의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위계를 설정하는 현대적 인종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Kim & Kim, 2010). 본 연구에서 차별 영역의 축약 진술문을 구성하는 근거가 된, 공공장소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모든 중국 물건은 불량품이라고 불신하거나, 중국 유학생을 도와주거나 보살피려고 하는 마음 한편에 무시를 깔고 있는 등의 현상을 신인종차별주의적 관점의 예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 아래 주류 국가 학생들과 유학생들 간에는 힘의 역동(power dynamic)이 발생하며, 유학생들의 적응 어려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특수성을 발견하기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차별 경험과 비교해보았을 때, 세부적인 예시는 달랐으나 그 맥락은 크게 다르지 않았

다. 예를 들어, 무시 및 모욕과 관련하여 미국 거주 중국인 유학생은 ‘본국으로 돌아가라’라는 거부 메시지를 포함한 직접적인 언어적 차별을 겪거나, 학생 모임에 초대받지 못하고 교수들이 불친절하게 대꾸하는 등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차별을 경험하였다(Lee & Rice, 2007). 이와 유사하게 국내 중국인 유학생은 인종차별적 용어나 중국에 대한 비하 발언을 들었고(남부현 외, 2018), 한국 학생이 ‘중국산 농산물은 못 먹겠다’라는 반응을 보일 때 마치 자신에 대한 비난처럼 느껴져 불쾌함과 무시감을 느꼈으며(하정희, 2008), 중국에 가려면 안전하게 다녀와야 한다며 중국에 대한 편견을 보이는 교수에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냈다(임춘희, 2009).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중국인 유학생들은 두 국가의 맥락에서 명백한 언어적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나,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느껴지는 부정적 정서’와 같은 현상을 공통적으로 경험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유색인종에게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가해지는 감지하기 어려운 언어적, 비언어적, 환경적 모욕을 뜻하는 미묘한 인종적 차별(racial microaggression)로 정의될 수 있다. 미묘한 인종적 차별은 일상생활에서 공공연하게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나,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거나 타인에게 고통을 호소하여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명백한 차별에 비해 개인의 정체성에 보다 심각하고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되므로,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미묘한 차별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Nadal et al., 2014).

본 연구의 분석대상 중 다수는 중국인 유학생의 차별 경험을 연구의 직접적인 주제로 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겪는 다양한 차별 상황을 기술하고 있었다. 즉, 중국인 유

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의 곳곳에 차별이 녹아 있는 것을 볼 때,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수의 연구들(Boysen, 2012; Houshmand et al., 2014)과 같이 후속 연구를 통해 유학생들의 차별 경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때, 개인 간 차별뿐만 아니라 학교 커리큘럼과 교실 분위기, 학교 제도 등이 유학생에게 어떠한 차별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를 함께 연구한다면 유학생들의 차별 경험을 예방하거나 개입법을 구축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 기관의 상부에서 먼저 변화에 헌신하면 그 낙수 효과로 교수진, 직원, 학생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문제 해결에 더 빠른 답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Sue et al., 1992).

두 번째로 높은 축약 진술문을 포함한 요소는 ‘언어적 스트레스’였다. 언어적 스트레스는 다양한 맥락(예: 대인관계, 교육)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여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의 근본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어 스트레스가 강조된 결과 진술문의 경우, 타 맥락(예: 교육적 어려움)이 담겨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언어적 스트레스에 분류하였다. 많은 연구물들이 언어 차로 인한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축약 진술문이 높은 빈도 효과 크기를 보였다. 해당 영역에서 드러난 중국인 유학생의 가장 보편적인 경험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겪는 소통과 대인관계 어려움이 소외감과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유학생의 언어 유창성은 심리적, 사회문화적 적응의 예측요인이 된다고 보고된 바, 대학생활적응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Zhang & Goodson, 2011).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

을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언어능력 부족으로 또래 및 교수와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초기 문화충격을 경험하거나 아예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게 되기도 하였다(Gautam et al., 2016; Houshmand et al., 2014; Yan & Berliner, 2011).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미국 대학 입학 을 위해 받았던 중국 내 TOEFL과 GRE 중심 영어 교육의 실효성 부족이 보고되었다(Yan & Berliner, 2011).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대학 입학 시 유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한국어 능력검정시험(TOPIK)의 난이도가 실제 대학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또는 학업에서 요구되는 한국어 능력과 괴리가 있어 이들의 적응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최근 들어 대학들이 많은 수의 유학생들을 유치하려는 목적 아래 한국어 능력 증빙을 입학 요건에 포함하지 않거나 전형에 따라 그 기준을 낮추고 있기도 하여(고대신문, 2018), 최소 기준의 한국어 능력도 갖춰지지 않은 채 입학하여 대학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유학생들은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해외와 국내의 상황은 유사해 보이는데, 한 가지 눈여겨볼 세부 요소는 조선족 유학생의 어려움이었다. 언어적 능력 부족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축약 진술문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던 두 논문(임춘희, 2009; 최금해, 2008)의 보고에 따르면 조선족 유학생은 같은 한민족으로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왔기에 한국 대학 및 사회생활 적응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활용되는 언어의 내용과 의미에 차이가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해외에서는 본인을 중국인으로 소개하고 한국어를 활용할 상황이 적기에 이러한 혼란을 경험할 일이 적으

므로,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한국어와 구별되는 조선족의 어조는 부정적 선입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임춘희, 2009),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족 유학생들은 언어 부적응 및 편견으로 인한 이중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언어적 어려움에 개입할 때는 조선족 학생들의 특수한 상황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유학생의 언어적 어려움에 대해 해외에서는 유학생들과 현지 학생들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문화간 소통 및 참여’와 같은 교과과정을 개설하도록 추천한다(Bodycott et al., 2014). 우리나라에서도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김경환, 신영지, 2014; 김순자, 송원찬, 2013), 이와 같은 교과활동에 더해 유학생들에게 학생회 등의 비교과활동에 참여기회를 제공한다면 이들이 자연스럽게 언어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사회문화적 스트레스’는 ‘대인 관계적 어려움’과 ‘문화 차이’의 중분류를 포함하고 있는데, 먼저 ‘대인 관계적 어려움’에서는 한국인 학생들과 피상적인 관계만 맺는다는 내용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러한 경험의 원인으로는 방학 때 중국에 갔다가 한국으로 되돌아오면 어색해지는 친구 관계(김영경, 2009), 무언가 벽이 있는 듯한 거리감 및 주어진 활동 이상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전재은, 장나영, 2012) 등이 있었다.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상황은 국내와 유사했는데, 이들은 미국 학생들만의 규칙과 담론을 해석하기가 어려워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Yan &

Berliner, 2011). 이들은 결국 같은 중국 국적 학생들과 주로 상호작용하게 되었는데, 중국 학생들끼리 어울리는 것은 다시금 유학생들의 문화적응과 영어 유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Yan & Berliner, 2011). 이러한 상황은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대인 관계적 어려움’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차지한 대학 내에서 유학생들만의 강력한 지지체계를 형성하고 결국 한국 학생들과 단절되는 결과를 낳는 내용과 유사함을 띤다.

‘사회문화적 어려움’의 두 번째 중분류인 ‘문화 차이’에서는 연령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존경을 표하거나 존칭을 사용하는 등의 한국의 예의 문화에 보편적인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었다. 특정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문화는 개인이 행동을 결정하고 사고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규범적인 정보가 되는데, 유학생들은 새로운 문화권으로 옮겨가면서 이러한 정보가 부족하게 되어 굉장한 생활 스트레스를 받는다(Yang & Clum, 1994). 즉, 유학생들은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 통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본인의 역할과 가치관에 혼란을 느끼게 된다(Yan & Berliner, 2011).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미국의 개방성, 자기중심적 경향과 비판·직면하는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몰라 스트레스를 받았다(Yan & Berliner, 2011). 이와 비슷하게 한국 특유의 예의 문화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성장하고 나이 및 세대를 따지지 않는 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였다(신선미, 유문무, 2014; 임춘희, 2009).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집단주의적 배경을 가진 아시아권 유학생들은 개인

주의, 자기주장 및 자급자족을 강조하는 서양권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인식되고 있다(Yeh & Inose, 2003). 이는 아시아권 유학생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여 이들의 문화적 특성을 서양권 유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아시아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유학생들과 무언가 벽이 있는 듯한 거리감을 느꼈고 제한적인 대인관계만을 유지하였다. 본 연구의 다른 영역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 학생과 중국인 유학생 사이에는 역사적 가치관, 사고방식과 놀이문화의 차이 등의 다양한 장벽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대인관계와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에 개입할 때는 아시아권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세부적인 차이점을 인지한 섬세한 개입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교육적 스트레스’에서 동등한 비율로 높은 빈도효과를 보인 축약 진술문들은 유학에 높은 기대수준을 갖고 있으나 성취가 낮은 경우 심리적 고통감을 느끼는 것, 한국의 수업 방식과 커리큘럼이 중국과 다른 것, 교수의 유학생에 대한 배려 없는 수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에게서도 한국과 유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더 나은 학업 환경, 자유로운 전공선택, 미국 대학의 명성, 부모님의 압력 등을 이유로 유학을 결정했고 성취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Will, 2019). 그러나 중국에서 배웠던 서술적이고 묘사적인 글쓰기 방식, 대형 강의, 지시적 강의형식이 미국의 논거기반 글쓰기와 자기주도적 강의형식과 달라 학업 적응에 어려

움을 겪었다(Heng, 2019). 즉, 미국과 한국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학업적 어려움은 유학 국가의 학습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련 사회적 자원의 도움 부족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경험하는 저성취 및 수업 방식 부적응에 대해서는 교내의 학업지원 프로그램(예: 학업 코칭, 일대일 멘토링 등)과 학생상담센터의 심리상담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한국과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들이 유사하게 겪는 어려움 중 커리큘럼 차이와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었던 세부 현상은 중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배운 기초지식의 내용과 수준이 한국 학생 또는 미국 학생의 그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에서 오는 어려움이었다(하정희, 2008; Heng, 2019). 대부분의 대학 수업은 해당 국가의 역사적, 사회정치적, 종교적, 고전 문학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전제로 진행된다(Heng, 2019). 이러한 해당 국가의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이 부족한 유학생은 본국 학생들에 비해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다. 국가 간 커리큘럼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으나, 유학생들의 현재 이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강의 속도는 적절한지 등에 대한 질문과 같이 단순한 상호작용을 통한 배려를 제공함으로써 유학생들의 학업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 요소인 ‘실생활 스트레스’는 ‘경제적 어려움’, ‘생활 어려움’, ‘교내 지원’, ‘국가적 제도 부족’의 중분류를 포함한다. ‘경제적 어려움’에서는 생활비 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내용, ‘생활’에서는 좋지 않은 거주환경 및 외국인에게 배려가 적은 기숙사 제도, ‘교내 지원 부족’에서는 유학생 맞춤 지원의 부족,

‘국가적 제도 부족’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법적 상황과 코로나19 이후 까다로워진 출입국 및 방역 정책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보편적인 경험으로 나타났다. 실생활 스트레스는 해외 거주 유학생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보고된 요소이다. 이들은 주거 등 도시 내 사회 기반 시설을 제대로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Poyrazli & Grahame, 2007),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학교 측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Kim & Kim, 2010).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특히 눈에 띈 점은 높은 성적을 유지해야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 규정(김영경, 2009; 정경희, 김영순, 2018), 한국 학생 위주의 기숙사 규칙 및 식단, 한국 학생들의 요청으로 유학생과 분리된 방 배정(남부현 외, 2014)이었다. 이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배려 부족과 한국 학생들의 배타성을 엿볼 수 있었다.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은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을 경우 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서 발급 절차가 번거롭고 입장에서는 허가증을 요구하지 않아 불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며(장희, 2013),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낮은 급여 등의 어려움을 경험한다(양자연, 2021, 진나, 2013). 부족한 맞춤 지원의 경우, 중국인 유학생들은 교내 동아리 활동,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를 원했으며 이를 위한 학교의 지원을 요구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주류 국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유학생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최고의 예

측 요인이며(Bochner, 1981), 대학의 사회적·제도적 지지 정도에 대한 유학생의 지각 수준은 적응의 모든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ho & Yu, 2015; Shu et al., 2020).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인관계적, 문화적응적 비교과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단순한 수동적 참여자 혹은 서비스 수혜자로서 머물지 않도록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면 전반적인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하면, 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한 축약 진술문의 내용은 서구권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많은 공통점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한 조선족 유학생의 경험, 그리고 동일한 아시아 문화권이지만 그 속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 문화 차이는 서구권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조선족 맥락과 관련하여 시사할 점은 다음과 같다. 조선족 맥락은 3편의 연구물에서 보고되었는데, 높은 빈도효과 크기를 보여 본문에서 자세히 다뤄진 언어와 차별 영역 외에, 사회문화적 스트레스 영역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한국과 중국에 역사적 마찰이 생겼을 때 동일민족인 조선족에게 한국 측 입장에 동조하기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내용으로(임춘희, 2009), “양국의 문화차이와 정치경제 및 역사적 문제로 인해 오해가 생기거나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축약 진술문을 구성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다. 이처럼 조선족 학생들의 맥락이 전체 다섯 가지의 영역 중 세 가지에 걸쳐 나타난 것을 볼 때,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어려

움에 개입할 때는 조선족 학생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더해 한 가지 더 시사할 점은,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을 주제로 한 논문들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여 일상생활에 변혁이 일어난 현 시대적 맥락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비록 관련 내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효과 크기를 보이지 않아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연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의 특수한 맥락은 다섯 가지 영역 중 ‘언어적 스트레스’, ‘사회문화적 스트레스 내 문화차이’, ‘실생활 스트레스 내 생활’의 세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코로나19 맥락은 유학생의 대학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낯선 타국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국인 유학생에게 정책 및 수업방식의 계속되는 변화, 무분별한 낙인, 경제적 어려움 증가 등의 측면에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메타요약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보다 세밀하게 연구되어야 할 주제와 교육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개입 요소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다수의 축약 진술문들은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도 및 태도 부족을 지적하고 있었다. 다문화 수용도는 타문화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편견이나 차별 없이 동등한 관계를 실천하는 능력을 말한다(황정미 외, 2017). 다문화 태도를 갖춘 사람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타문화에 공감하며, 다문화 사회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강혜정, 임은미, 2012; 이병식, 이인서, 2019). 그러나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인들에게 배타성과 자민족중심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진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인과 같지 않으면

포용하지 않거나 한국 중심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성향을 뜻한다. 예를 들어, 한국인 교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관심이 없어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유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교육적 스트레스), 한국 학생들은 유학생들의 어려움에 도움이 손길을 내밀지 않거나 출신 국가에 따라 다른 태도를 견지하였다(차별). 이러한 상황에서 미루어보건대, 유학생들이 현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운 상황(대인관계)은 유학생 개인의 원인과 한국인 학생들의 무관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에 더해, 대학 제도적으로는 유학생을 위한 맞춤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학교 차원의 다문화 역량 부족을 보였다(실생활 스트레스).

현재 한국은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인구가 전체 인구수의 5%를 넘었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으나(김진희, 2019), 타국가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진 다문화 사회화는 단일민족 정체성과 자문화중심주의와 맞물려 한국인들의 정서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박서연, 2019). 이러한 상황 속 대응책으로 유학생 집단을 한국 사회의 협력적인 일원으로 바라보도록 사회적 시선을 변화시키는 것을 꼽을 수 있다(박성원, 신동일, 2014). 즉, 유학생들은 각국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교육 다양화를 촉진하며 유치국가에 재정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Guruz, 2011). 관점의 변화와 더불어 유학생의 가장 근접한 사회적 자본인 한국인 학생과 교수의 다문화 사회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이들을 위해 동화주의형 교육 대신 유학생의 문화와 언어가 존중되는 다문화주의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김진희, 2019). 정리하자면, 앞으로의 과제는 유학생 적응의 어려움에 있어서 주류 국가 구성원의 태도와 관련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유학생의 개인적 요인 탐색과 환경적 요인 탐색 사이에 미묘한 균형을 잘 세워 적절한 예방책과 개입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Yoon & Portman, 2004).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고유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탐색하기 위해 서구권의 개별 질적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그러나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을 주제로 한 서구권 질적 메타요약 연구를 찾을 수 없었기에 본 연구에서 발견된 진술문의 효과크기, 즉 해당 주제 내 상대적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추후 비교문화적 연구 설계를 통해 한국과 서구권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어려움 양상을 분석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가 한국 고유의 특성임을 주장하는 추가적인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어려움을 이론적 틀 안에서 조직화함으로써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교수 및 대학 구성원들이 유학생들을 지도하고, 한국 학생들이 중국인 유학생들과 협력할 때 고려해야 할 사회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 외국인 유학생이 지속적으로 유치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가는 상황에서, 유학생들의 적응을 돕고 국가의 한 구성

원으로서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가 한국인 학생, 교수, 외국인 유학생들이 어우러지는 대학 환경을 만드는 이론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혜정, 임은미 (2012). 대학생용 다문화태도 척도의 한국판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3(4), 35-57.
- 고대신문[웹사이트] (2018). 외국인 유학생 수 늘어났지만 언어 장벽 여전해. <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24775>
- 교육부[웹사이트] (2014).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9&lev=0&statusYN=C&s=moe&m=020101&opType=N&boardSeq=52802>
- 교육부[웹사이트] (2021). 2021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512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교육통계서비스[웹사이트] (2021).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수. <https://kess.kedi.re.kr/index>
- 김경남, 김남희 (2021).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동기와 국내 취업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과학연구*, 52(3), 27-52.
- 김경환, 신영지 (2014).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집중학습 과정: 성균관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8(6), 169-196.
- 김명광 (2021). Covid-19와 유학생 유치 정책에 대한 일고. *현대사회와다문화*, 11(2), 35-67.
- 김민석 (2018). 정신장애인 회복 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요약. *사회과학연구*, 34(1), 85-110.
- 김성혁, 최혜정, 김수진 (2012).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적응 경험. *다문화건강학회지*, 2(1), 1-15.
- 김순자, 송원찬 (201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기반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제어문*, 57, 71-103.
- 김영경 (2009). 학교상담 중국, 일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요구 분석. *상담학연구*, 10(1), 535-559.
- 김진희 (2019). 한국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비판과 이주민에 대한 편향적 태도 분석. *평생학습사회*, 15(2), 127-153.
- 남부현, 김옥남, 남기석 (2014). 외국인 유학생 생활경험 속에 투영된 한국인과 한국문화. *사회과학연구*, 25(1), 105-126.
- 문정현, 윤지원 (2021).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인문사회* 21, 12(4), 2931-2940.
- 박서연 (2019). 국민정체성과 위협의식,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외국인 밀집 지역 거주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연구*, 35(1), 19-31.
- 박성원, 신동일 (2014). 외국인 유학생의 학문 공동체 참여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교육 인류학연구*, 17(1), 103-158.
- 변기용 (2020). 근거이론적 방법 현장 기반 이론 생성을 위한 질적 연구. 서울: 학지사.
- 신동훈, 김세현 (2020).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 활용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연구 동향 분석: 시기별 연구주제 변화 탐색. *교육학연구*, 58(1), 333-361.
- 신선희, 유문무 (2014). 재한 (在韓)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18(2), 45-69.
- 양자연 (2021). 재한 중국인 여학생의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왕방, 이창식 (2013). 재한 중국 유학생의 여가 만족과 희망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지털정책학회지*, 11(3), 397-405.
- 우진영 (2016). 장애인의 형제자매가 겪는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종합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윤성근, 한여울, 이승진, 이은별, 이주희, 임소정, 양은주 (2020). 자살 유가족의 애도 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요약.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4), 571-597.
- 이병식, 이인서 (2019). 대학생 다문화 태도에 대한 다양성 경험과 대학의 구조적 다양성 효과 분석. *교육학연구*, 57, 197-225.
- 이선미, 김영순 (2021).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동향 분석. *현대사회와다문화*, 11(1), 25-60.
- 이연희[웹사이트] (2015). .교육부 “유학생 20만명 유치 2020년→2023년까지”.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8974>
- 이현주, 이미정 (2019).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국내 지원 정책 연구. *인문사회*21, 10(4), 235-250.
- 이혜영, 박수정 (2018).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2007~2016). *글로벌교육연구*, 10(4), 119-145.
- 임춘희. (2009).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문화에서의 스트레스와 적응.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93-112.
- 장이즈, 김민아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인한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서비스 욕구. *사회복지연구*, 52(2), 65-93.
- 장희 (2013). 중국 유학생의 경험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그 한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전재은, 장나영 (2012). 니하오?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학생과의 교우관계: 중국인 유학생의 경험과 인식. *한국교육학연구*, 18(1), 303-326.
- 정경희, 김영순 (2018).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교육 서비스 경험에 관한 연구: 수도권 지역의 A 대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3), 547-565.
- 진나 (2013). 재한 중국유학생이 “지각된 차별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최금혜 (2008). 재한 중국 유학생의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0(1), 115-138.
- 최윤희, 이정은 (2016). 재한 중국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과 대학생활 적응 연구. *대학생활연구*, 22, 91-115.
- 하정희 (2008).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73-496.
- 한국경제[웹사이트] (2019). ‘먹튀 외국인’ 잡으려던 건강보험 의무가입, 외국인 유학생 유탄.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51781971>

-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229.
- Arends-Toth, J. V. & van de Vijver, F. J. R. (2006). *Issues in conceptualization and assessment of acculturation*. In M. H.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6), 697-712.
- Berry, J. W. (2006). *Stress perspectives on acculturation*. In D. L. Sam, & J. W. Berry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acculturation psychology* (pp. 43-5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chner, S. (1981). The social psychology of cultural mediation. In S. Bochner (Ed.), *The mediating person: Bridges between cultures* (pp. 6-36). Boston: Schenkman Publishing.
- Bodycott, P., Mak, A. S., & Ramburuth, P. (2014). Utilising an internationalised curriculum to enhance students' intercultural interaction, engagement and adaptation. *The Asia-Pacific Education Researcher*, 23(3), 635- 643.
- Bourhis, R. Y., Moise, L. C., Perreault, S. & Senecal, S. (1997). Towards an interactive acculturation model: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2, 369 - 386.
- Boysen, G. A. (2012). Teacher and student perceptions of microaggressions in college classrooms. *College Teaching*, 60(3), 122-129.
- Cho, J., & Yu, H. (2015). Roles of University Support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Analysis of a systematic model of university identification, university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9(1), 11 - 27.
- 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me. (2018). CASP Qualitative Checklist. Available at: <https://casp-uk.net/wp-content/uploads/2018/01/CASP-Qualitative-Checklist-2018.pdf>.
- Drisko, J. W. (2020). Qualitative research synthesis: An appreciative and critical introduction. *Qualitative Social Work*, 19(4), 736-753.
- Fu, X. Y., 최상은, 김병찬 (2021). 코로나 19 사태에서 중국유학생의 적응과정 사례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7), 891-914.
- Gautam, C., Lowery, C. L., Mays, C., & Durant, D. (2016). Challenges for Global Learners: A Qualitative Study of the Concerns and Difficulties of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6(2), 501-526.
- Guruz, K. (2011). Higher educa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in the global knowledge economy: Revised and updated (2nd ed.). New York,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Heng, T. T. (2019). Understanding the heterogeneity of international students' experiences: A case study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US universitie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23(5), 607-623.
- Houshmand, S., Spanierman, L. B., & Tafarodi, R. W. (2014). Excluded and avoided: Racial microaggressions targeting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in Canada. *Cultural Diversity and*

- Ethnic Minority Psychology*, 20(3), 377.
- Hu, W. H., & Zhang, Z. (2013). International students' adjustment problems at university: a critical literature review. *Academic Research International*, 4(2), 400.
- Jin, Y. Y., Xu, N., & 안현선 (2021).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2011~2020). *다문화교육연구*, 14(2), 55-71.
- Kim, S., & Kim, R. H. (2010). Microaggressions experienced by international students attending US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D. W. Sue (Ed.), *Microaggressions and marginality: Manifestation, dynamics, and impact* (pp. 171 - 191). John Wiley & Sons Inc.
- Lee, J. J. & Rice, C. (2007). Welcome to America? International student perceptions of discrimination. *Higher Education*, 53, 381 - 409.
- Levitt, H. M. (2018). How to conduct a qualitative meta-analysis: Tailoring methods to enhance methodological integrity. *Psychotherapy Research*, 28(3), 367-378.
- Ma, X. J. (2021). 코로나 시대 제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McGuire, P. E. (2019). The Latinx Immigrant's Experience of Anti-immigrant Sentiment: A Qualitative Meta-summary (Doctoral dissertation, John F. Kennedy University). <https://www.proquest.com/docview/2308261996?pq-origsite=gscholar&fromopenview=true>
- Mori, S. (2000). Addressing the mental health concerns of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8, 137 - 144.
- Nadal K. L., Wong, Y., Griffin, K. E., Davidoff, K., & Striken, J. (2014). The adverse impact of racial microaggressions on college students' self-esteem.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5(5), 461-474.
- Navas, M., Garcia, M. C., Sanchez, J., Rojas, A. J., Pumares, P. & Fernandez, J. S. (2005). Relative Acculturation Extended Model (RAEM): New contributions with regard to the study of accultu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21-37.
- Paterson, B. L., Thorne, S. E., Canam, C., & Jillings, C. (2001). Meta-study of qualitative health research: A practical guide to metaanalysis and meta-synthesis. Thousands Oaks, CA: Sage.
- Piontkowski, U., Rohmann, A. & Florack, A. (2002). Concordance of acculturation attitudes and perceived threat.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5, 221-232.
- Poyrazli, S., & Grahame, K. M. (2007). Barriers to adjustment: needs of international students within a semi-urban campus community. *Journal of Instructional Psychology*, 34(1), 28.
- Safdar, S., Lay, C. & Struthers, W. (2003). The process of acculturation and basic goals: Testing a multidimensional individual difference acculturation model with Iranian immigrants in Canada. *Applied Psychology*, 52, 555 - 579.
- Sandelowski, M. (2001). Real qualitative researchers do not count: the use of numbers in qualitative research. 3), 230-240.
- Sandelowski, M. (2012). Metasynthesis of qualitative research. In H. Cooper, P. M. Camic, D. L. Long, A. T. Panter, D.

- Rindskopf, & K. J. Sher (Eds.), *APA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psychology, Vol 2: Research designs: Quantitative, qualitative, neuropsychological, and biological* (pp. 19-3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andelowski, M., & Barroso, J. (2003). Creating Metasummaries of Qualitative Findings. *Nursing Research, 52*(4), 226-233.
- Sandelowski, M., & Barroso, J. (2007). Handbook for synthesizing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Springer.
- Sandelowski, M., Barroso, J., & Voils, C. I. (2007). Using qualitative metasummary to synthesiz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escriptive finding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30*(1), 99-111.
- Shu, F., Ahmed, S. F., Pickett, M. L., Ayman, R., & McAbee, S. T. (2020). Social support perceptions, network characteristics, and international student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74*, 136-148.
- Smith, R. A., & Khawaja, N. G. (2011). A review of the acculturation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5*(6), 699 - 713.
- Sue, D. W. (2010).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Race,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John Wiley & Sons.
- Sue, D. W., Arredondo, P., & McDavis, R. J. (1992).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and standards: A call to the profes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0*(4), 477-486.
- Timulak, L. (2009). Meta-analysis of qualitative studies: A tool for reviewing qualitative research findings in psychotherapy. *Psychotherapy Research, 19*(4-5), 591-600.
- Walsh, D., & Downe, S. (2005). Meta-synthesis method for qualitative research: A literature review. *Methodological Issues in Nursing Research, 50*, 204-211.
- Ward, C., Bochner, S. & Furnham, A. (2001). *The psychology of culture shock* (2nd ed.). London: Routledge.
- Will, N. L. (2019). From isolation to inclusion: Learning of the experiences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U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6*(4), 1069-1075.
- Yan, K., & Berliner, D. C. (2011).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ic trends, motivations, acculturation features and adjustment challenge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2*(2), 173-184.
- Yang, B., & Clum, G. A. (1994).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problem-solving skills predictive of depressive symptoms,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in an Asian student popula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4*, 127 - 139.
- Yeh, C. J., & Inose, M. (2003). International Students' Reported English Fluency, Social Support Satisfaction, and Social Connectedness as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16*, 15-28.
- Yoon, E., & Portman, T. A. A. (2004). Critical issues of literature on counseling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 Development, 32*(1), 33-44.
- Zhang, J. & Goodson, P. (2011). Predictors of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international students' psychosocial adjustment to life in the United States: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5, 139-162.

원 고 접 수 일 : 2022. 03. 10.

수정원고접수일 : 2022. 05. 31.

최종게재결정일 : 2022. 07. 21.

A Qualitative Meta-Summary of College Maladjustment Factors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

Yoonhee Lee Nuo Xu Soeun Hong Eunbyeol Lee Eunjoo Yang

Korea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tegrated qualitative studies on the college maladjustment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 using a qualitative meta-summary. Existing qualitative studies explored the difficulties that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encounter in-depth, but it was difficult to integrate their findings because they used different methods or studied different themes. Thus, this study used a qualitative meta-summary to identify more common and general themes emerging from the existing literature. A total of 15 studies were identified in academic database. Analysis yielded 603 statements and 39 abstracted statements. The difficulties that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faced were categorized as language stressors, educational stressors, sociocultural stressors, discrimination, and practical stressors. The most frequent abstracted statements were discrimination, language differences, and interpersonal problems caused by psychological distance. The discussion compared Korea's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reflected on the findings with those of the United States. Th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the suggestions for the changes of university communit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College adjustment, Qualitative Meta-summary, Sociocultural factors, Diversity attitude

부 록

분석대상 연구물 리스트

- 김성혁, 최혜정, 김수진 (2012). 제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적응 경험. *다문화건강학회지*, 2(1), 1-15.
- 김영경 (2009). 학교상담 중국, 일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요구 분석. *상담학연구*, 10(1), 535-559
- 남부현, 김옥남, 남기석 (2014). 외국인 유학생 생활경험 속에 투영된 한국인과 한국문화. *사회과학연구*, 25(1), 105-126.
- 남순현 (2010). 중국유학생의 학년별 학교생활 적응유형분석 및 문화적응전략과 문화정체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4(4), 977-998.
- 박은미, 황빙의, 정태연 (2010).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8(2), 205-223.
- 신선희, 유문무 (2014). 제한 (在韓)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18(2), 45-69.
- 임춘희. (2009).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문화에서의 스트레스와 적응.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93-112.
- 장이츠, 김민아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이후 한국 거주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낙인 경험. *보건사회연구*, 41(1), 22.
- 장이츠, 김민아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인한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서비스 욕구. *사회복지연구*, 52(2), 65-93.
- 전재은, 장나영 (2012). 니하오?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학생과의 교우관계: 중국인 유학생의 경험과 인식.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18(1), 303-326.
- 정경희, 김영순 (2018).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교육 서비스 경험에 관한 연구: 수도권 지역의 A 대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3), 547-565.
- 최금혜 (2008). 제한 중국 유학생의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0(1), 115-138.
- 최윤희, 이정은 (2016). 제한 중국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과 대학생활 적응 연구. *대학생활연구*, 22, 91-115.
- 하정희 (2008).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73-496.
- Fu, X. Y., 최상은, 김병찬 (2021). 코로나 19 사태에서 중국유학생의 적응과정 사례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7) 891-914.